

영어문장의 의미변화에 따른 억양음조 실현양상에 대한 고찰*

: 영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인 화자를 비교하여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Intonational Tunes

Depending on the Difference of Meaning in English

: In Comparison of English Native Speakers with Korean Speakers

박 순 복**, Greg Skrypiczajko***, 김 기 호**

Soon-Boak Park, Greg Skrypiczajko, Kee-Ho K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both English native speakers and Korean speakers realize the intonational tunes of English sentences when a sentence has two different meanings, through comparison of the utterances of the two groups of speak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nglish native speakers realize the difference in the meanings of given sentences in terms of differences in the boundary tones, as predicted in Pierrehumbert(1980) and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 according to whom intonation is composed of a series of pitch accents, phrase tones, and boundary tones, and the meaning of a given sentence is delivered by the composition of the individual meanings of each component. The Korean speakers, however, fail to realize the difference in meaning with its boundary tones. Rather, they realize it by the number or positions of pitch accents and paralinguistic cues such as emotions and gestures. The Korean speakers, unlike the Americans, emphasize subject in sentences.

Keywords : Intonational Phonology, intonational tune, meanings, boundary tone

1. 서 론

Pierrehumbert(1980)의 억양음운론에 의하면 억양은 고성조(H)와 저(L)성조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억양음조는 세 가지의 구성성분, 즉 피치악센트, 구성조(phrase

* 본 논문은 교육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Brain Korea 21-핵심분야'의 지원으로 연구된 것으로 한국음성과학회 학술발표회(2000. 4. 15)에서 발표된 바 있음.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tones), 경계성조(boundary tones)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억양음운론에서는 억양의 의미를 전통적인 영국식 의미분석에서와 같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전체적인(holistic) 단위로 분석하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발화의 의미는 피치악센트, 구성조, 경계성조 각각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되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 한 문장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때, 그 문장의 의미차이는 억양을 구성하는 이들 피치악센트, 구성조 및 경계성조의 차이로 구현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영어 문장들을 두 가지 다른 의미로 발화하도록 하였을 때 영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가 이들 문장들을 어떠한 억양음조로 실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억양 성조를 이루는 피치악센트, 구성조 및 경계성조 중 경계성조만을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억양의미에 대한 연구는 Cruttenden 1986; Bolinger 1964; Stockwell 1972; Gunter 1972 등과 같은 영국학과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의 연구는 다양한 억양곡선들의 문법적·의미적 특성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상승어조는 의존이나 비완료, 주저함, 정중함 등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반면, 하강어조는 완료, 명확성, 독립성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영국식 억양 기술은 억양의미를 전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즉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는 파악하는데 그쳤으며, 이에 따라 여러 유형의 억양들을 상승조, 하강조, 상승하강조 등으로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음운적 측면에서 억양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Pierrehumbert (1980)의 억양음운론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 Ward & Hirschberg(1985), Hirschberg & Ward(1995)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하나의 억양음조가 피치악센트, 구성조, 경계성조로 이루어진 것처럼 억양의 의미 역시 이들 세 가지 구성요소들 각각의 의미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피치악센트 중 단일성조인 고성조 피치악센트(H*)는 화자와 청자의 공유 영역 속에 '새로운 정보'를 첨가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반면, 저성조 피치악센트(L*)는 화자가 악센트 받은 항목을 두드러지도록 하는 의도는 있지만 새로운 정보가 아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주고자 할 경우(salience-without-predication)에 쓰인다. 한편 고 경계성조(H%)는 '비완료', 즉 현재의 발화가 후속되는 발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저 경계성조(L%)는 현재 발화와 후행하여 나오는 발화와의 관계가 미약하여 '종료'나 '완료'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영어문장이 완료와 비완료의 의미, 또는 확신과 불확신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질 때 영어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학생들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계 성조의 차이에 의해 완료와 비완료, 확신과 불확신의 주어진 두 의미가 구별될 수 있으므로, 한국인 화자의 경우에도 모국어 화자와 같이 경계성조를 활용하여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만일 한국인 화자가 영어 모국어 화자와 어떠한 차이를 보인다면, 한국인의 영어 발음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억양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본 실험 결과는 보다 개선된 영어 억양 교수법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억양과 의미와의 관계

Pierrehumbert(1980)와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에 따르면 하나의 발화에 포함되는 억양은 피치악센트, 구성조, 경계성조의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화된 문장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피치악센트, 구성조 및 경계성조 각각의 의미가 복합적(compositional)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Ladd 1996, 김기호 1999a, b 등 참조): 즉, 억양음조를 구성하는 구성성분은 각각 고유의 특정 의미를 가지며, 발화된 문장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각 구성요소의 고유한 의미가 함께 조합적으로 어우러져 하나의 전체의 의미를 형성한다.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에서 제시된 이들 구성요소 각각의 의미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ierrehumbert의 모델에 의하면, 피치악센트에는 6가지(H*, L*, L*+H, L+H*, H*+L, H+L*)가 있으며, 이들 피치악센트는 각각 고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단일성조인 고성조(H*)와 저성조(L*)의 피치악센트의 의미를 고려해보자. 피치악센트 H*는 화자가 청자의 의미해석 영역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이 추가된 정보를 강조하고자 할 때 쓰이며, 피치악센트 L*는 청자도 이미 알고 있다고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두드러지게 보임으로써 강조하고자 할 때 쓰인다. 상승과 하강의 이중성조도 단일 성조와 같이 고유의 의미를 전달한다. 상승악센트(L+H)는 화자가 강조하는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scale)의 현저성을 부각하고자 할 때 쓰이는데, 특히 L*+H는 불확실성과 의심스러움을 전달하는 반면, L+H*는 악센트 받은 항목을 화자와 청자가 서로 알고 있음을 내포하여 주로 상대방이 한 말을 수정하거나 대조를 표시할 때 사용된다. 한편 하강악센트(H+L)는 화자가 하는 말을 청자가 추론(inference)할 수 있을 때 주로 사용된다. 다음 (1)의 영어 보기는 상승조의 피치악센트(L*+H)를 사용하여 불확실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좋은 예이다.

(1) A: Did you take out the garbage?

B: Sort of.

L*+H LH%

보기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자 A가 '쓰레기 버렸니?'라고 물었을 때, 화자 B는 상승조의 L*+H 피치악센트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버린 정도'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즉, 화자 B는 '쓰레기는 버리기는 하였지만, 질문자인 A가 만족할 만큼 완전하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는 못했음'을 상승조의 피치악센트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구성조와 경계성조를 구성하는 가장자리성조(edge tones)는 후행구나 후속발화와와의 관련성의 정도를 표현한다. 즉 후행하는 구와 현재의 발화의 관련이 밀접하면 고성조(H)를 사용하는 반면, 두 발화 사이의 연관성이 없으면 저성조(L)를 사용한다. 따라서 화자가 고 경계성조(H%)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현재의 발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다음 번 발화에서 완료됨을 암시하며, 따라서 고 경계성조(H%)는 가부 의문문(yes-no question)에 주로 사용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억양음운론에서는 영어의 억양 음조가 피치악센트, 구성조 및 경계성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고유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어진 문장의 의미는 발화된 이들 각각의 의미들이 조합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미에 의해 나타나는 억양음조 중에서 특히 경계성조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실험

영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의미실현 양상을 비교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3.1 피험자

영어 모국어 화자로 모두 3명(남자 2, 여자 1)을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울 소재 K대학교의 국제어학원에 재직중인 외국인 강사들로서 표준 미국영어를 구사하는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미국인들이다. 반면, 한국인 화자의 경우에는 모두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전혀 없는 K대학교 2-4학년 학생 5명(남자 2, 여자 3)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실험자료

본 실험에 사용된 자료는 하나의 문장이 특히 경계성조에 의해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갖는 영어 문장으로 모두 6개의 쌍의 문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마련된 문장들은 모두 의사소통 과정에서 쉽게 발견되고 흔히 사용되는 문장들로 다음 보기 (2-7)와 같다.

- (2) a. I'd like to help you. - *genuine intention* (Yes, Sure I can.)
b. I'd like to help you. (...But I can't. I have an appointment.)
- (3) a. I'd like to go to the movie. (Yes, I really want to go.
It's the movie that I want to see, not the hockey game.)
b. I'd like to go to the movie. (...but I can't.)
- (4) a. Well, it looks like it will work. - *certain*
(I think it'll go as well as I expect.)
b. Well, it looks like it will work, - *uncertain, not sure of anything*
- (5) a. I suppose it would be alright. (OK. *Sure*)
b. I suppose it would be alright. (I'm *not sure*)
- (6) a. It sounds like a good idea. - *agreement, certain*
b. It sounds like a good idea. - *uncertain, not sure whether it's a good idea.*
- (7) a. The stock market is going up today. - *certain, confident*
b. The stock market is going up today. - *uncertain, hesitant*
(It may go back down tomorrow)

보기 (2-7)의 문장들은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갖는 예문들이다. 특히 예문 (2)와 (3)은 완료와 비완료가 대조된 된 예이며, 예문 (4)-(7)의 문장들은 확신과 불확신의 의미가 대조된 예들로 이들 문장들은 구어체의 경우 억양으로 인해 그 차이가 구별될 수 있는 예들이다. 필자들은 보기 (2-7)의 문장 중 (a)의 문장들이 일종의 확신의 문장으로 후행하는 문장과 밀접한 관계가 없으므로 완료를 뜻하는 L%의 경계성조가 쓰이겠지만, (b)의 예문의 경우에는 일종의 불확신을 내포하는 문장이므로 무엇인가 완료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H%의 경계 성조가 쓰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우리의 예측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3.3에서와 같은 실험절차를 거쳤다.

3.3 실험절차

먼저 영어 모국어 화자에게 시험연구(pilot study)를 통해 녹음된 자료의 문장 12개를 무작위로 순서를 달리하여 테이프에 녹음한 후, 녹음된 문장을 들려주고 보기 (8)에서와 같이 주어진 4 개의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선행실험(paper & pencil task)을 실시하여 실험 자료의 문장들이 영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 실제로 경계성조에 의해 두 의미가 구별되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보기 (8)은 (2a)의 문장으로 하강조의 억양음조로 발화된 문장이다.)

(8) (=2a) I'd like to help you. (H* LL%)

- | | |
|----------------------|---------------------|
| a) genuine intention | b) erratic attitude |
| c) unpleasant | d) disagreement |

이러한 선행 과제수행 결과, 모국어 화자는 필자들의 예측과 같이 경계성조가 L%인 발화에 대하여 긍정적 의미인 'genuine intention, certain, sure' 등에 답하였지만, 경계성조가 H%인 발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미인 'uncertain, not sure' 등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영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 경계성조에 의해 주어진 문장의 의미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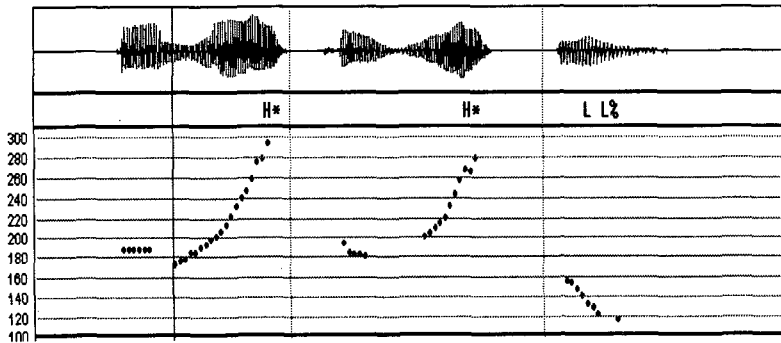
반면, 한국인 화자의 녹음에서는 이러한 선행 과제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러한 선행 실험으로 한국인 화자가 외국인의 억양을 모방할 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그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한국인 화자의 경우, 각 문장의 의미와 그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그 뜻을 명확히 설명하여 주었으며, 녹음시 이해가 덜된 부분은 다시 녹음하거나 화자에 따라서는 한 쌍의 의미 문장들의 녹음이 끝난 후 다음 쌍의 문장들을 녹음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녹음은 소음이 차단된 녹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모국어 화자 3명과 한국인 화자 5명이 12개의 문장을 3번씩 발화하여 각각 108개(3×12×3)와 180개(5×12×3)의 실험 토큰이 만들어졌으며, 녹음된 문장의 토큰은 UCLA에서 개발된 음성분석기인 PC-Quirer에 의해 파형과 피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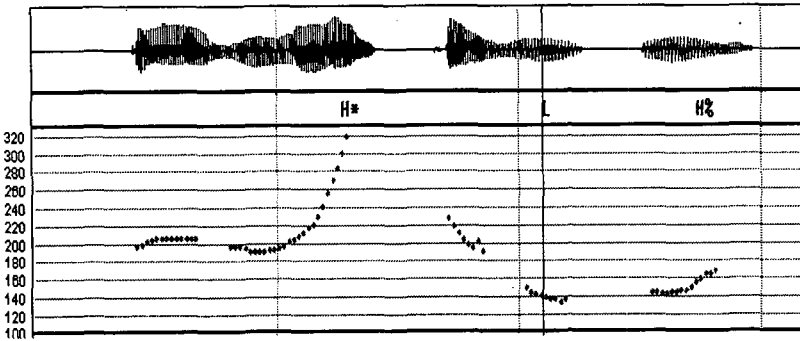
4. 실험 결과 및 논의

4.1 모국어 화자

실험결과 영어 모국어 화자의 발화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i) 모든 화자들이 각 문장의 의미변화의 차이를 경계성조의 차이로 잘 실현시켰으며, ii) 피치악센트의 경우, 상이한 의미 차이와는 무관하게 화자마다 대부분 동일한 위치에 고성조 피치악센트(H*)를 구사하였는데, 이는 주어진 문장들이 평서문이기 때문이다. 이때 피치악센트는 모두 내용어의 강세 음절에 주어졌다. iii) 몇몇 화자의 경우, 경계성조 뿐 아니라 의미의 차이를 피치악센트의 개수의 차이로 두 의미를 구별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완료와 비완료의 대조를 보이는 (2) 'I'd like to help you'의 문장과 확신과 불확신의 의미의 대조를 갖는 (5) 'I suppose it would be alright' 문장의 피치곡선을 살펴보자. 다음 그림 1은 영어 모국어 화자 A가 발화한 (2a, b)의 문장을 피치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2a) I'd like to help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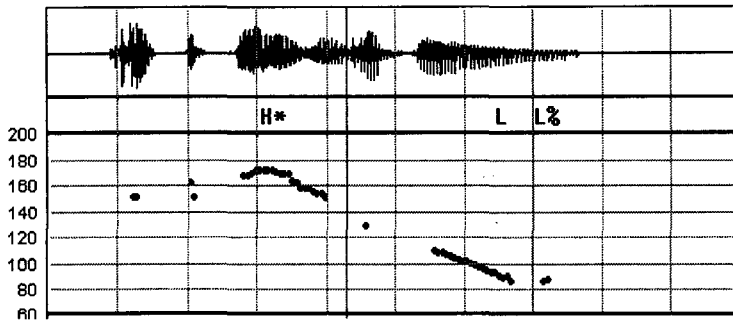
(2b) I'd like to help you

그림 1. 모국어 화자 A의 (2a, b) 'I'd like to help you'의 피치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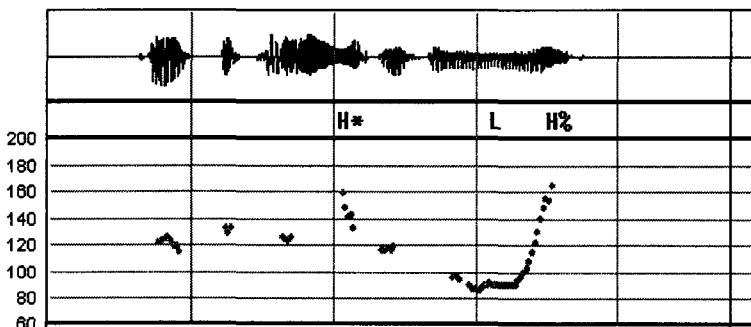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화자 A의 경우, 완료의 문장과 비완료의 문장의 차이를 경계

성조의 차이(L% vs. H%)로 분명히 다르게 구현하고 있다: 즉, 긍정의 의미를 갖는 (2a)의 발화에서는 문장이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하강조 어조인 LL%를 사용한 반면,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1b)의 발화에서는 LH%를 사용하여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무언인가 할 말이 더 남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자 A의 경우, 긍정의 문장인 (2a)에서 내용어 어휘항목인 동사 'like'와 동사 'help' 두 곳에 모두 고성조인 피치악센트 H*를 부여함으로써 '돕고 싶다'를 모두 '새로운 정보'로 강조한 반면에,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 (1b) 문장에서는 동사 'help'에는 구성조 L를, 그리고 동사 'like (하고 싶다)'에는 피치악센트 H*를 부여함으로써 '...하고 싶다'만을 새로운 정보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어 모국어 화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완료와 비완료의 대조를 보이는 (3a)와 (3b) 'I'd like to go to the movie.'의 문장에서는 화자 C의 발화에서만 피치악센트를 달리한 발화가 관찰되었으며, 나머지 화자들은 모두 같은 수의 피치악센트를 동일한 어휘에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확신과 불확신의 의미의 대조를 갖는 (5a, b) 'I suppose it would be alright'의 문장을 고려해 보자. 다음 그림 2는 영어 모국어 화자 C의 발화를 피치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5a) I suppose it would be alright



(5b) I suppose it would be alright

그림 2. 모국어 화자 C의 (5a, b) 'I suppose it would be alright'의 피치곡선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국어 화자는 (5a)와 (5b) 문장의 의미 차이를 경계성조에 의해 다르게 구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5a)와 (5b)는 모두 동사 'suppose'에 고성조 피치악센트 H*가 부여되어 있으나, (5a)에서 L%가 부여됨으로써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확신함으로 더 이상의 후속발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인 반면, (5b)에서는 H%로 실현시킴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여, 이 발화가 끝난 후 또 다른 말을 추가하고 싶은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여준 피치악센트 개수의 변화는 확신과 불확신의 의미의 대조를 보이는 문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장 (6) 'It sounds like a good idea'에서 확신의 문장인 (6a)의 경우 화자 B와 화자 C가 내용어인 'sounds'와 'idea'에 피치악센트 H*를 부여한 반면, (6b)에서는 동사 'sounds'에만 악센트를 부여함으로써 불확신의 문장에서 가장 자리성조를 LH%로 구현하는 동시에 피치악센트의 개수를 하나로 줄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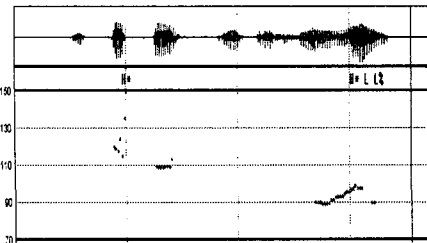
모국어 화자가 주어진 영어문장의 의미의 차이를 억양으로 구현하는 양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국어 화자는 주어진 의미의 차이를 경계성조의 차이로 잘 구현하였다: 모국어 화자는 총 12개의 평서문에 각 화자가 대부분 동일한 항목에 피치악센트 H*를 부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문장의 끝 경계성조에는 (2a-7a)의 문장에서와 같이 완료된 문장에서도나 확신을 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하강조인 LL%를 부여한 반면, (2b-7b)의 문장에서와 같이 화자가 말하는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부정적 또는 회의적일 때에는 상승조인 LH%를 부여함으로써 두 문장의 의미의 차이를 경계성조의 차이로 실현하였다. 즉, (2a-7a)는 완료와 확신의 문장이기 때문에 하강조 경계성조인 L%에 의해서 그 발화에서 끝내고 싶은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반면, 각 문장 (2b-7b)는 불확신과 완료되지 않은 문장이므로 화자는 상승조 경계성조인 H%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번 발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번 발화에서 끝날 것이다', '할 말이 더 있다' 등의 함축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피치악센트와 관련하여 모든 모국어 화자들은 내용어에 고성조 피치악센트 H*를 부여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피치악센트의 개수로 전하려는 의도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 1에서 보았던 것처럼 완료나 확신의 긍정적 의미를 갖는 문장에서는 피치악센트를 'like'와 'help' 모두에 부여한 반면, 비완료나 불확신의 부정적 문장에서는 피치악센트를 'like'에만 부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화자 B와 C의 문장 (2) 'I'd like to help you', 문장 (6) 'It sounds like a good idea', 그리고 화자 C의 문장 (3) 'I'd like to go to the movie'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전체 6개의 쌍으로 된 문장 중 3개의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의 의미의 차이를 피치악센트 개수의 차이로 실현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모국어 화자는 주어진 모든 문장에 대하여 화자마다 동일한 위치에 고성조 피치악센트(H*)로 실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의미의 차이를 경계성조의 차이로 구현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억양음운론의 의미해석에 의해 예측한 바와 같이 두 의미의 차이를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경계성조의 차이에 의해서 잘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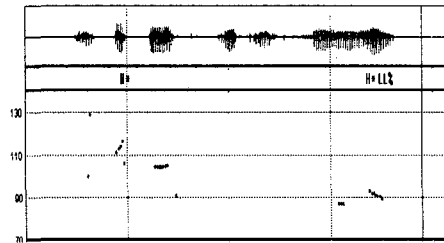
4.2 한국인 화자

영어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학생들이 발화한 억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인 화자는 영어 모국어 화자에 비하여 크게 다섯 가지의 특징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첫째, 한국인 화자는 모국어 화자와 비교하여 주어진 의미의 차이를 경계성조의 차이로 구현하는 경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둘째, 문장이 'I'나 'It'과 같은 기능어로 시작되더라도 한국인 화자의 경우 이들 기능어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하므로 문장의 시작 단어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대조나 강조 용법을 제외하고는 'I'나 'It' 따위의 기능어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셋째, 주어진 문장이 평서문이므로 영어 모국어 화자와 같이 피치악센트를 고성조 피치악센트인 H*로 구현하였고, 몇몇 화자의 경우, 피치악센트의 개수의 차이로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구별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피치악센트가 부여되는 위치가 달랐다. 넷째, 모국어 화자의 경우 화자간에 피치악센트가 부여되는 위치에 일관성을 보여주었으나, 한국인 화자의 경우에는 화자간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하는 위치에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화자의 경우, 주어진 의미의 차이를 억양 음조의 변화가 아닌 소리 세기, 표정, 몸짓 등과 같은 준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다음 그림 3은 한국인 화자 A가 발화한 (5a, b) 'I suppose it would be alright' 문장을 피치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5a) I suppose it... be al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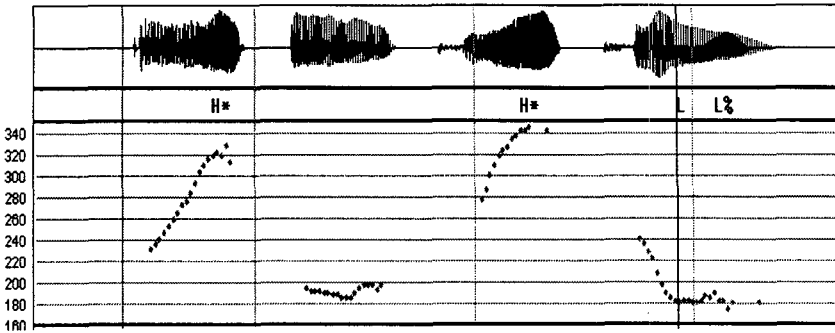


(5b) I suppose it... be al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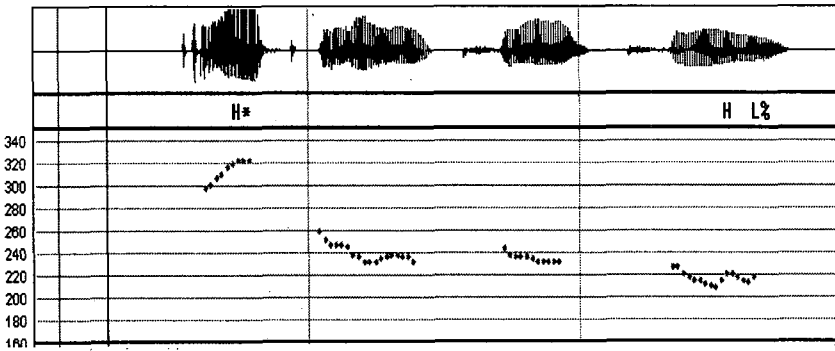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인 화자 A의 (5a, b) 'I suppose it would be alright.'의 피치곡선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 (5a)와 (5b)가 분명히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화자 A는 유사한 억양으로, 즉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음조인 하강조의 억양(H* LL%)으로 실현하여 영어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주어진 문장의 차이를 경계성조로 나타내지 못하였다. 더욱이 모국어 화자의 경우, 피치악센트가 강세음절인 'suppose'의 두 번째 음절에 부여하고 있는 데 비하여(그림 2 참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 화자(A)의 경우, 동사 'suppose'의 첫 음절에 H*가 실현되어 이른 정점(early peak)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그림 4는 한국인 화자가 주어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예로서, 화자 C가 발화한 (2a, b)의 'I'd like to help you' 문장의 피치곡선이다.



(2a) I'd like to help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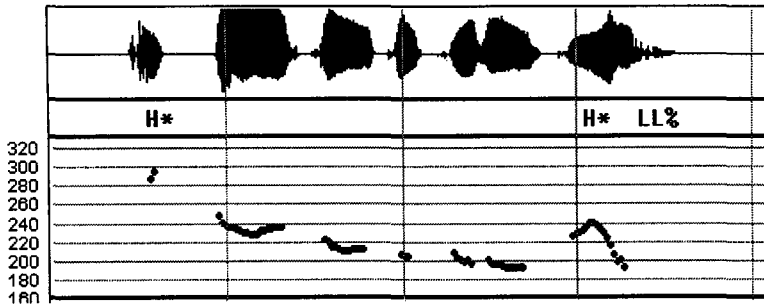


(2b) I'd like to help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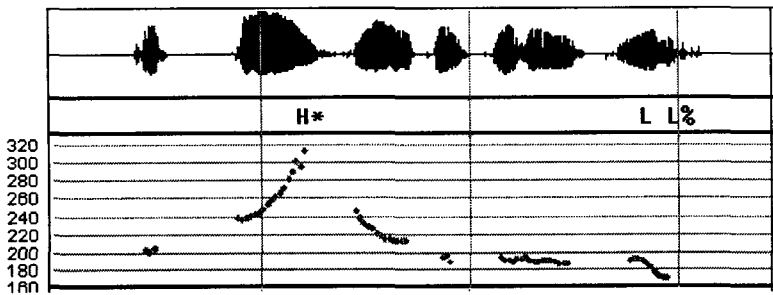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인 화자 C의 (2a, b) 'I'd like to help you'의 피치곡선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인 화자는 (2a)문장에서는 'I'd'와 'help'에, (2b)에서는 'I'd'에 각각 피치악센트 H*를 실현시키고 있다. 모국어 화자의 경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인 'I'에 H*를 부여한 경우를 거의 볼 수 없었고 모두 내용어인 'like'와 'help'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 화자의 경우에는 문장 맨 앞에 있는 대명사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인 화자는 문장 주어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특히, 화자 B, C, D는 50% 이상의 비율로 주어 'I'에 피치악센트 H*를 부여하였다). 앞서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성조 피치악센트 H*의 의미는 강세받는 어휘가 새로운 정보로 청자의 인식영역에 입력되기를 바라는 뜻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담화 상에서 내용어가 아닌 주어 대명사 'I'에 피치악센트 H*를 부여하는 것은 대화에 있어서 매우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는 한국인 화자가 외국인과의 영어로 대화할 때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억양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5는 한국인 화자의 발화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화자 D의 문장 (6a, b) 'It sounds like a good idea.'의 피치곡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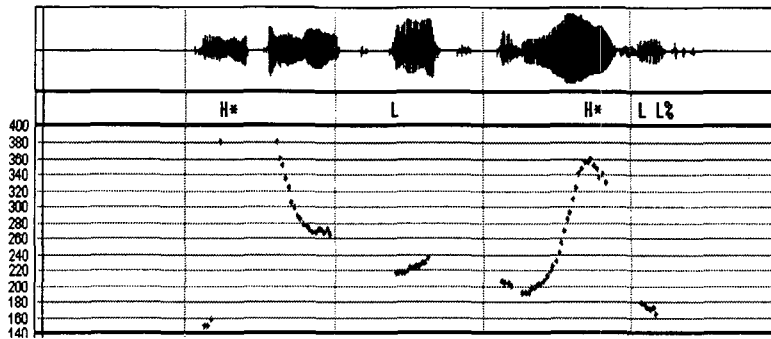
(6a) It sounds like a good i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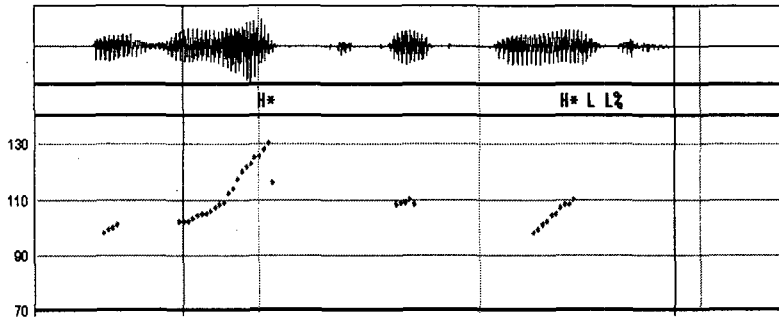
(6b) It sounds like a good idea

그림 5. 한국인 화자 D의 (6a, b)의 'It sounds like a good idea.'의 피치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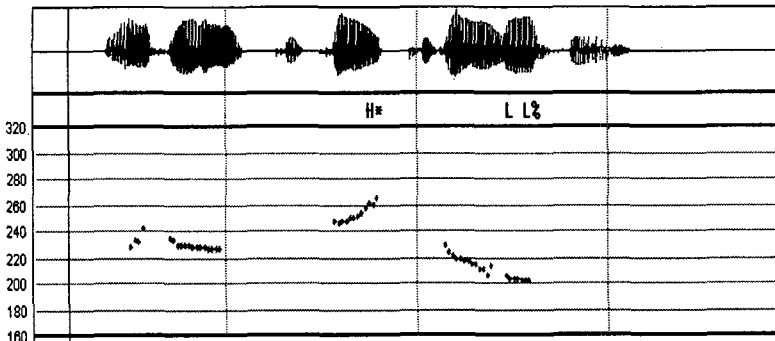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 화자 D 역시 두 문장의 차이를 경계성조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두 문장의 차이를 피치악센트의 개수로, 즉 긍정의 예문인 (6a)의 경우에는 2개의 피치악센트를, 부정의 예문인 (6b)에서는 하나의 피치악센트를 사용하여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영어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6a)의 경우 내용어인 'idea' 뿐만 아니라 대명사인 'It'에도 피치악센트를 부여함으로써 대명사 주어를 강조하는 한국인 화자의 발화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6b)에서는 (6a)와 달리 내용어 'sounds'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한국인 화자의 경우, 동일 화자 내에서도 피치악센트가 다른 단어에 부여되므로 부여 위치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화자간에서도 나타난다.(영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 피치악센트는 화자 내에서 뿐 아니라 화자간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동일한 위치에 부여되고 있다.) 다음 그림 6은 한국인 화자 B, D, E가 발화한 문장 (3a)의 피치곡선을 보여준다.



(3a) I'd like to go to the movie (화자 B)



(3a) I'd like to go to the movie (화자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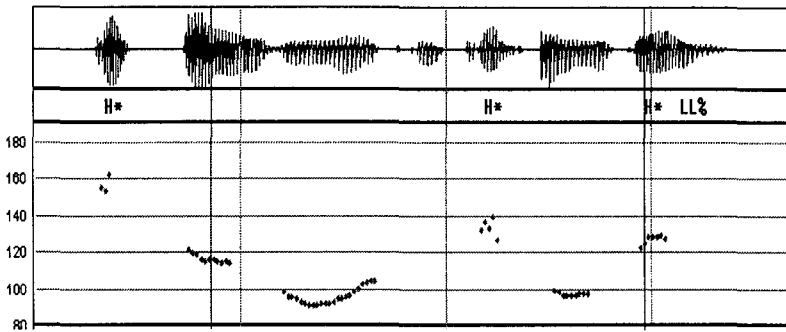
(3a) I'd like to go to the movie (화자 E)

그림 6. 한국인 화자 B, D, E의 (3a) 'I'd like to go to the movie.'의 피치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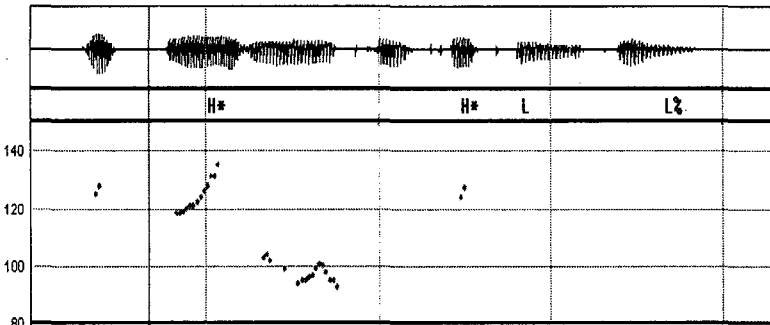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동일 위치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하는 영어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한국인 화자 B, D, E은 각기 다른 위치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하고 있다: 화자 B는 'I'd'와 'movie'에, 화자 D는 'go'에, 화자 E는 'like'와 'movie'에 고성조 피치악센트 H*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한국인 화자는 강조하고 싶은 항목에 있어서 서로 일관성이 결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화자 B의 경우는 주어진 'I'에 피치악센트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한국인 화자의 억양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화자의 억양 실현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피치곡선으로 다음 그림 7을 고려해 보자.



(6a) It sounds like a good i - dea



(6b) It sounds like a good idea

그림 7. 한국인 화자 A의 (6a, b) 'It sounds like a good idea'의 피치곡선

그림 7은 'It sounds like a good idea'을 발화한 한국인 화자 A의 억양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 화자 A의 경우, 경계 성조의 차이로 의미를 달리 전달하는 영어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두 문장을 모두 동일한 음조(H* LL%)로 실현하여 의미를 구분하는데 경계성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주어진 의미의 차이를 피치악센트의 차이로 구현시키고 있는데, (6a)에서는 'It', 'good', 'idea'라는 세 항목에 고성조 피치악센트 H*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6b)에서는 'sounds'와 'good'에 H*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인 화자 A는 영어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주어진 'It'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두 문장에서 피치악센트가 부여된 위치 역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화자 A에서 특기할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그림 7의 음파(sound wave)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의미를 갖는 (6a)와 부정적 의미를 갖는 (6b)의 음의 세기의 차이이다: 화자는 불확실하거나 부정적 의미의 문장은 확신이나 긍정의 예문

에 비해 작은 목소리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화자의 경우, 경계 성조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보상하기 위해 영어 모국어 화자와는 다른 준언어적(paralinguistic) 요소에 의존하여 구현시키고 있다: 한국인 화자 5명 중 3명은, 확신과 불확신의 대조를 보이는 문장에서, 확신의 문장에서는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발화하였으나, 불확신의 문장에서는 주저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발화하였다. 비완료의 경우에도 불확신의 문장에서와 같이 감정을 넣어서 발화하거나, 얼굴 표정을 찡그리고 몸짓을 사용하는 등, 준언어적 요소에 의존하여 발화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한국인 화자의 경우 주어진 의미의 차이를 경계성조의 차이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치악센트의 부여에 있어서도, 고성조 피치악센트 H*를 부여하며 의미의 차이를 피치악센트의 개수의 차이로 구별하였다는 점에서는 몇몇 모국어 화자의 억양실현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악센트의 위치가 화자마다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화자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불확신의 문장에서는 경계성조 대신 주저하면서 소리를 작게 하거나 제스처와 같은 준언어적인 요소에 의지하여 발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5. 요약 및 영어교육적 의의

영어 억양음운론에 의하면, 영어의 억양성조는 피치악센트, 구성조, 경계성조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화된 문장의 의미 역시 이들 각각의 의미가 조합되어 하나의 의미를 이루고 있다. 또한 문장의 의미는 피치악센트의 종류에 의해서 뿐 아니라 피치악센트의 위치에 의해서도, 즉 어느 강세음절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를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교적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며, 주어진 의미차이를 경계성조로 달리 구현하는 영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인 화자의 경우, 부여되는 피치악센트의 위치가 화자간은 물론 화자 내에서도 일치하지 않으며, 영어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문장 어두인 'I'나 'It' 등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의미의 차이를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경계성조의 차이로 전혀 구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인 화자의 억양이 영어 모국어 화자의 발화와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 화자의 억양실현양상이 외국인의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특히 한국인 화자의 현행 영어교육에서 억양교육에 대한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모두 평서문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인 화자의 억양실현의 결과는 가부의문문은 상승조에 의해, 평서문은 하강조에 의해 발화한다는 일반적인 이분법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지식이 평서문도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의미를 가질 때 의문문에서처럼 상승조, 즉 H%에 의해 구현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미의 그릇된 전달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실제로 한국인들의 영어 발음의 문제로 부자연스러운 영어 억양이 자주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록 본 연구가

경계성조에 국한된 극히 제한적인 억양 구사능력 실험에 불과하였지만, 앞으로의 영어 억양교육에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차수진(1995), 금유현(1997), 한상미(1998), 이종화(1996) 등등 억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영어 억양교육에의 필요성을 음운론자와 영어교육자들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앞으로도 본 실험과 유사한 실험들이 수행되어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보탬이 되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기호. 1999a. "억양 음운론의 소개: 영어 억양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6. 119-43.
- [2] _____. 1999b. "영어 억양음운론에 의한 억양 의미 분석." *한국음성과학회 여름학회 특강 논문*.
- [3] 금유현. 1997. *효율적인 영어억양 지도 방안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이종화. 1996. *영어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억양지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 [5] 차수진. 1995.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억양 표시연구 -2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한상미. 1998. *음성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영어억양 교정 방법*.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 [7] Hirschberg, Julia and Gregory Ward. 1995. "The interpretation of the high-rise question contour in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24: 407-412.
- [8] Ladd, D. Robert. 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9] Miller Sue. 2000. *Targeting Pronunciation: The Intonation, Sounds, and Rhythm of American English*.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New York. pp. 139-56.
- [10] Pierrehumbert, Janet B.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thesis, MIT.
- [11] Pierrehumbert, Janet. and Julia Hirsc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R. Cohen, J. Morgan, and M. E. Pollack(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pp. 271-311.
- [12] Ward, Gregory and Julia Hirschberg. 1985. "Implicating uncertainty," *Language* 61: 747-76.

접수일자: 2000. 4. 25.

게재결정: 2000. 6. 03.

▲ 박 순 복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1-7
삼익소월아파트 373-102(우: 435-050)
Tel: (0343) 395-1061 (H)
e-mail: scully@igroupnet.co.kr

▲ Greg Skrypizajko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우: 136-701)
Tel: (02) 3290-2456 (O)
e-mail: skryp@canada.com

▲ 김 기 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우: 136-701)
Tel: (02) 3290-1988 (O)
e-mail: keehokim@kuccnx.korea.ac.kr